

1차 세계대전(1914-1918)의 정치에 대해*

Zur Politik im Weltkrieg (1914-1918)

저자: 히네르크 브룬스 _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센터

Hinnerk Bruhns _CNRS

번역: 한수경 _인천대학교

Han, Su-Kyung _Incheon National University

<세계대전의 정치에 대해. 문헌과 연설 1914-1918(Zur Politik im Weltkrieg. Schriften und Reden 1914-1918)>은 1984년 막스 베버의 첫번째 전집(MWG)으로 출간되었으며, 15권 중 1권으로 강골프 휘빙거(Gangolf Hübinger)와 공동으로 볼프강 J. 뎀젠(Wolfgang J. Mommsen)이 발행했다. 1988년 이후 이 책은 편집 기관을 위해 그리고 일부 더 축소된 상태로 교육용 막스 베버 전집에도 들어 있다.

이 책은 두 부분. 즉, 1) 저술 2) 강연과 토론내용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교육용에서 빠진 부록 2편을 포함하고 있는데, 즉 부록I편은 공동서명한 교부서와 포고, 부록II편은 명시되었으나 양도하지 않은 문서와 발언문이다. 발행인 볼프강 뎀젠의 베버 전집에 대한 서문은 교육용에서는 후기로 약간 보완한 형태이며, 2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1장은 “정치가와 언론인으로서의 막스 베버(Max Weber als Politiker und Publizist)”, 2장은 “시대사적 맥락(zeitgeschichtliche Kontext)”이다. 편집보고가 담긴 전집에서 각각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축소된 내용으로 교육판 부록에서 볼 수 있다. 두 출판물 모두 인명

* 이 글은 2014년 한스-페터 뮐러(Hans-Peter Müller)와 스테펜 지그문트(Steffen Siegmund)가 독일에서 발행한 막스 베버 안내서 Max Weber-Handbuch: Leben-Werk-Wirkung에 게재된 히네르크 브룬스의 “Zur Politik im Weltkrieg”(201-207쪽)을 저자의 허락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목록, 인명색인과 내용색인을 포함한다. 베버 전집은 부가적으로 “막스 베버가 인용한 문헌목록”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텍스트 원본(그리고 문헌인용에 있어 베버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임)에 상응하는 것으로 단지 15개의 제목만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대전의 정치에 대해>에서 통일된 문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정치적 저술 모음(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GPS)>과 <사회학과 사회정치에 관한 논문집(Gesammelte Aufsätze zur Soziologie und Sozialpolitik, GASS)>에서 미리 접할 수 있다.

<세계대전의 정치에 대해> 전집의 외국어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서에 포함된 중요한 몇몇 텍스트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즉, 우선 <새롭게 정비된 독일 의회와 정부(Parlament und Regierung im neugeordneten Deutschland)>(베네데토 크로체(Benedetto Croce)의 발기로 이미 1919년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었다), 다음으로 먼저 <러시아의 형식적민주주의로의 변화(Rußlands Übergang zur Scheindemokratie)>, <사회주의와 선거권(Der Sozialismus und Wahlrecht)> 그리고 <독일의 민주주의(Demokratie in Deutschland)>이다.

첫번째 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상이한 내용의 30편 가량의 저술을 담고 있다. 20, 30 페이지 혹은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논문 이외에 짧은, 간혹 한 페이지 혹은 몇 페이지에 담긴 신문기사들이 있다. 둘째 부분 “강연과 토론내용에 대한 보고”는 본질적으로 당연히 짧지만, 여러 신문기사나 여러 인물들의 비망록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용에는 각각 가장 상세한 기사만을 넣었다.

제목 <세계대전의 정치에 대해>는 여기 수집된 문헌과 연설의 모든 범위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전체 범위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이 책의 핵심은 논문 <새롭게 정비된 독일 의회와 정부(Parlament und Regierung im neugeordneten Deutschland)>을 다루고 있다. 이 유명한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인 분석 이외에도 베버의 군병원행정에 대한 보고서, 러시아 혁명,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논문 그리고 “사회주의”에 관한 그 유명한 강연이 있다(s. Kapitel II, 34).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정치는 세계정치적 상황,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 잠수함전쟁, 프로이센의 선거개혁의 필요성, 중부유럽 문제, 헌법개혁 그리고 다른 여러 것들

에 관한 많은 기사에서 나타난다.

<세계대전의 정치에 대해> 논문에 작성일자 혹은 출판일자에 따라 시간별로 정리된 문헌들은 상당부분 프랑크푸르터 차이퉁(Frankfurter Zeitung, FZ)에 게재된 기사를 다룬다(그 중에는 검열로 인해 출간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또한 베버가 자신의 출판과 관련해 작업한 것도 있다). 이외에도 신문 뮌헨너 노이에스텐 나흐리히텐(Münchner Neuesten Nachrichten), 주간신문 디힐페(Die Hilfe), 월간잡지 디프라우(Die Frau)에 게재된 기사들, 자체 발간한 팜플렛, 회고록 간행물 그리고 위원회 토론에 관한 보고서가 있다.

세계전쟁에서의 ‘정치’, 이 표제어엔 역사적, 지리정치학적 그리고 헌법적인 측면에서 잠수함 혹은 ‘귀환하는 전사’를 위한 선거법 개혁과 같은 제국의 정치와 전시작전에 관한 아주 시급한 현안에 대한 베버의 입장표명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본질인 노동도 포함된다. 이 문제들은 또한 시사정치와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1915년 12월 FZ 신문에 게재된 기사인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과 현재(Bismarcks Außenpolitik und die Gegenwart)>는 “유럽의 세계강국들 하에서의 독일(Deutschland unter den europäischen Weltmächten, 주간지 Die Hilfe에 발간됨)”에 대한 1916년 여름의 강연 그리고 무엇보다 방대한 논문인 <독일의 선거법과 민주주의(Wahlrecht und Demokratie in Deutschland, 1917)와 <새롭게 정비된 독일 의회와 정부(Parlament und Regierung im neugeordneten Deutschland)>를 보완한 것이다. <관료주의와 정당활동의 정치적 비판에 대해(Zur politischen Kritik des Beamtentums und Parteiwesens)>는 1917년 4월과 6월 사이에 FZ에 발간된 기사 시리즈를 수정한 것을 토대로 1918년에 발간되었다.

본질적으로 또 다른 것은 논문 <사회주의(Der Sozialismus)>로, 이는 k.u.k. 군최고사령부 ‘적의 프로파간다-방어지점’의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표한 것인데, 군사령부는 이 정보강좌에 참여하는 군간부들을 비독일 군단에 행해지는 볼셰비키 프로파간다에 대항하는 논거로 무장시키기를 원했다. 제국의 정치제도와 미래 발전상황에 대한 방대한 논문들 이외에 다양하고, 아주 구체적이며, 상세한 <독일제국의 헌법 개혁을 위한 제안들(Vorschläge zur Reform der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이 있다. 저서 <세계대전의 정치에 대해>의 이 부분은 잇따른 저서 막스 베버-전집 <독일의 신질서를 위해. 저술과 연설 1918-1920(Zur Neuordnung Deutschlands. Schriften und Reden 1918-1920)> (MWG I/16)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여권론자인 게르트루트 뵘이머(Gertrud Bäumer)와 잡지 ‘디프라우(Die Frau)’의 발행인 헬레네 랑에(Helene Lange)에게 보낸 <베버의 공개 서안(Offene Briefe Webers)> 같이 짧고, 덜 알려진 문헌은 전쟁에 대한 베버의 입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두 법칙 사이(Zwischen zwei Gesetzen)>란 제목으로 발행된 단지 3페이지에 담은 이 글로 베버는 전쟁에서의 규범갈등에 대한 논쟁에 관여했다.

책의 시작은 베버의 <군병원행정에 대한 경험보고서(Erfahrungsberichte über Lazarettverwaltung)>이다. 막스 베버는 예비역 소위가 된 이후 전쟁이 시작되자 자발적으로 즉시 군에 지원했는데, 전방투입에 적당하지 않아 그는 하이델베르크 예비-군병원위원회에 군회원으로 배치되었고, 교관의 자리에 임명되었다. 베버의 지역엔 9개의 군병원이 새롭게 개설되었으며, 총 42개의 군병원을 그가 관리해야 했다. 대략 1년 동안의 업무를 마친 이후에 쓴 베버의 경험보고서는 그의 작품에서 관료주의 주제(2장, 4쪽)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그는 여기서 대체적인 시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된 ‘아마추어-행정’에서 정비된 관료행정으로의 변화에 대해 숙고한다.

전쟁에서의 베버의 정치적 평론(politische Publizistik)은 그가 군병원행정에서 퇴직한 이후에 1915년 9월 처음으로 시작된다. 그는 전쟁을 처음부터 환영했다. “여러분들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형제들이 적 앞에 있다. 나 또한 참여하리라. 결과가 어떻든지 이 전쟁은 거대하고 굉장하기에!”(“파울 지백에게 보낸 엽서, 1914년 8월 28일). 하지만 베버는 많은 다른 동료들처럼 무비판적으로 열광의 도취에 빠져들지는 않았으며, 또한 야망 높은 “93의 소환”에 서명하지 않았다(Ungern-Sternberg, 1996). 강대국이라는 독일의 요구에 대해 나라를 강화하고 기초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쟁이 그에겐 처음부터 나중의 결과가 회의적으로 보였다. 그의 전쟁평론은 한편으론 독일 정치에 대한 극도로 비판적인 베버의 시각에 상응하는 것이며(군대를 통한 전쟁수행에 관해서보다), 다른 한

편으로 적합한 공적 사용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과 관련한 것인데, 그 공적 사용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면 정치에 참여한 학자로서 독일의 전쟁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은 이후에도 우선 프리드리히 나우만(Friedrich Naumann)의 ‘중부유럽을 위한 연구위원회’에서 그는 자유로운 학자로서 자신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게다가 1915년 말 이후 ‘프랑크푸르트 차이퉁(FZ)’이 그에게 지면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수많은 입장표명과 연구가 게재되었다.

<전쟁에서의 정치>에서 수집한 전쟁평론에 대한 핵심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즉,

- 전쟁 목적에 대한 문제. 이 문제와 범독일인과 다른 민족들의 전쟁 목적에 대한 비판, 현실적이고 세계정치 상황에 관련한 독일의 이익을 수행하는 외교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와 관련하여.
- 소위 강화된, 즉 무제한적 잠수함 전쟁에 대한 비판
- ‘귀환하는 전사자’, 프로이센의 3계급 선거법의 입장에서 개혁
- 정치제도와 헌법의 의회화, 이와 관련된 빌헬름 2세의 ‘개인 통치’의 폐지

비록 구체적인 시사문제가 논의되었을지라도 전체 평론의 특징은 전쟁 이후의 독일 상황에 대한 베버의 실질적인 의문과 걱정으로, 즉 종전 이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발전 그리고 평화의 본질에 대한 것이다. 또한 1917년 4월과 5월의 러시아 혁명에 대한 두 문헌(러시아의 형식적민주주의로의 변화(Russlands Übergang zur Scheindemokratie) 그리고 러시아 혁명과 평화(Die russische Revolution und der Friede)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강연은 전쟁기간과 전쟁종료에 대한 질문과 경제적 사회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관련된 것에 속한다.

베버는 원칙적으로 병합 반대자는 아니었다. 그는 전쟁 이후의 세계정치적 전망에서 바라본 계획들을 평가했다. 독일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아닌 러시아라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항한 영국과 프랑스와의 차후의 연맹- 혹은 타협선택권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될 모든 병합욕망(해협연안의 균형에 대한 요구와 같은)은 억제되어야 했다. 강대국 독일의 지정학적 시각에서 베버가 바라볼 때 독일의 ‘정치-지리학적 절단’(네덜란드의 존재를 통

해)은 다시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불행’이었다. 희망사항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의 현실적인 예측들로 그의 입장을 규정했다.

다음에선 <세계대전에서의 정치에 대해> 논문이 인쇄된 기록물에서 선별한 것만 다를 예정이다. 양이 많은 기록들 중에 3개는 사안과 시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독일제국의 헌법 개혁을 위한 제안들(Vorschläge zur Reform der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 1917년 3월에 독일제국의회(Reichstag)의 국민자유당(Nationalliberalen), 진보인민당(Fortschrittliche Volkspartei)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en)은 정부의 반란에 대하여 헌법위원회 설치를 통과시켰는데, 이 위원회는 1917년 5월에 일곱 번 열렸다. 진보인민당원인 콘라드 하우스만(Conrad Haußmann)이 베버에게 제안을 부탁했다. 베버가 치밀하게 완성하고 논증한 제안들은 (1) 독일제국의회를 위한 조사권(Enqueterrecht) 시행, (2) 제국의회와 제국참의회(Bundesrat)에서의 모순 폐기를 법안상정, 제국총리, 프로이센의 총리 혹은 외무부 장관의 기능 연결을 위한 법안상정, 그리고 연방제후들의 발언에 대한 권한이 없는 공포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안상정에 관한 것이다.

개별 사안들에 대한 논증들은 짧은 정치-사회학적 분석의 표본이다. 이 논증들은 얼마 후에 <의회와 정부(Parlament und Regierung)>에 대한 긴 논문으로 다룬다. 연방제후들에 대한 재갈 물림은 무엇보다 빌헬름 2세를 위해 생각한 것으로, 이는 베버 비판의 끊임없는 표적이다. 베버에 따르면, 황제의 발언들은 독일제국 재상이 그 발언에 대해 문제없다고 선언하고,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만 공포가 허용된다. “29년 동안 이어져온 대계 순전히 민족적이고, 아주 자주 아마추어 같으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군주의 공개석상의 출현”이 “독일의 끔찍한 정치적 패배”에 있어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MWG I/15, 283).

조사권과 관련하여 베버는 각각의 근대적 행정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관료주의의 기술적 필요성은 폭넓은 통제불가능성을 동반하는데, 주민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대체로 의회로 인한 것이다. 조사권에서 베버는 행정의 공개를 강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서비스업으로써’ 관료주의의 단체정신을 경계하는 공무비밀에 대항해), 또한 “각각의 다수의 영향에 대항한 의회에서 대표되는

소수의 보호수단으로 본다”(ebd., 274). 첫눈에 순전히 헌법 기술적인 이런 저런 제안들은 독일국가에 대한 베버의 근본적인 숙고와 연결된 것이며, 다음의 베버의 확신과도 연결된다. 즉,

한 민족의 정치적 교육과 성숙의 정도는 정당프로그램과 선거운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진행되는’ 행정사무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느냐 하는 정도를 통해서도 규정된다(ebd.).

하지만 여기에 관료주의를 통한 비밀지식으로의 서비스지식의 독점화가 대치하고 있다.

1917년 4월과 6월 사이에 게재된 프랑크프르터 차이퉁(FZ)의 신문기사시리즈, 즉 1918년 초에 “새롭게 정비된 독일 의회와 정부. 관료주의와 정당활동의 정치적 비판에 대해 (Parlament und Regierung im neugeordneten Deutschland. Zur politischen Kritik des Beamtentums und Parteiwesens)”라는 제목 하에 보완한 형태로 별도로 출간된 기사에서 국가의 성숙도 문제는 초기 단계에 있다. 비스마르크는 “의회와 정당정치인의 정치적 무용성을”(ebd., 207) 의도적으로 야기했다. 여기에 베버가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유산에 대해 유명한 문장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는 수준에 있어 20년 전에 이미 도달한 수준보다 더 낮은 ‘완전히 그리고 어떤 정치적 교육도 없는’ 국가를 유산으로 남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또 어떤 정치적 의지도 없는 국가(...), 자신에 대해 무엇을 결정하든 “군주정부”의 회사 치하에서 숙명적으로 선포하는데 익숙해진 국가 말이다(...)(ebd., 449).

비스마르크는 정치적 전통을 남기지 않았고, 정치 엘리트들을 기용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강력한 명성의 부정적인 결과만으로 “완전히 무력한 의회”를 만들었다.

베버의 개혁제안들은 의회가 더 이상 “현행 관료주의를 마지못해 인내하는 승인-기관으로”(ebd., 450) 기능하지 않고, 중대한 문제들을 책임의식을 갖고 다

루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회와 정부(Parlament und Regierung)>는 베버의 가장 유명한 논문이자 가장 많이 번역된 정치학 논문이다. 그는 여기서 의회 민주주의 이론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출발점의 하나는 독일민족의 역사적 과제가 근본적으로 국가형태의 모든 문제들 위에 서 있다는 점이며(ebd., 432), 다른 하나는 만일 독일제국의 정치제도를 의회 민주주의 방향으로 근대화한다면 - 입헌군주제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 강대국들의 경쟁관계라는 주어진 상황 하에서 독일제국이 다만 생존할 수 있다는 냉정한 진단이다.

비스마르크 유산에 대한 분석에 이어(Kapitel I) 베버는 5단계를 더 나가고 있다. 제2장 “관료주의지배와 정치적 리더십(Beamtenherrschaft und politisches Führertum)”에서 근대국가(s. Kap. II. 35)와 근대 자본주의 경영은 밀접한 유사성을 가져왔다. 둘 모두를 위한 결정적인 경제적 토대는 관료주의가 직접적으로 순종하거나 혹은 호출시에 뜻대로 따르게 하는 특정 권력의 손에 있는 “실질적 경영수단의 집약(Konzentration der sachlichen Betriebsmittel)”인데, 그것은 국가, 민간경제, 군사, 대학 혹은 법정 등의 관료주의다. 또한 정당은(s. Kap. II. 25) (다른 이익단체 형태들도) “모든 인간의 지배단체”의 합리적이고, 분업적이며, 전문적인 관료기관의 진행에 굴복하며(ebd., 461), 보편적 관료화의 개선행렬에 굴복한다. 이 피할 수 없는 추세와 관련하여 미래의 정치적 기관형태에 대한 문제는 세가지 시각으로 다루어 져야만 한다: 첫째, 조금이라도 남은 개인적인 활동자유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둘째, 필연적인 공무원계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단지 이 제한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또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셋째, 정치가 혹은 기업인들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사업의 실제적 지배가 행해지는데, 권력투쟁에서 나온 이 지배가 직무에 대해 어떻게 자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한편으론 관료주의 잠재적 통제관청(군주와 의회)과 다른 한편으론 정치지도자에 대해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온다. 행정공개와 정치지도자의 선택의 관계는 3장의 주제이다. 그 다음 4장에선 “외교정책에서의 관료지배(Beamtenherrschaft in der auswärtigen Politik)”에 대해 다루어 진다. 이 제목에는

- 내부 행정의 공적비밀유지 전통과는 놀라울 정도로 상반되는 - 독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외교적 문제에 대한 순전히 군주 개인의 발언들이 국제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혹은 행하는 “부지런한 궁정관리(beflissener Hofbeamten)”의 관료정신에 대한 비판이 숨겨져 있다. 지도적 정치인의 책임의식 대신에 관료정신, 여기서 베버는 우선 정치적 명예에 대한 의무훼손을 지적하며(ebd., 249) - 명예는 그의 정치적 사고의 핵심 개념이며 - 그리고 다음으로 잘못 탄생된 독일 의회주의의 구조적인 구성결함을 지적한다.

“의회제도화와 민주화(Parlamentarisierung und Demokratisierung)”의 관계를 (Kapitel V) 베버는 선거권, 직업정치인으로서의 발전, 능동적 대중민주화 그리고 지도자의 국민투표 선발과 의회 선발 간의 대비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ebd., 267). 베버가 차후에 - 하지만 자신의 전체 작품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에만 (!)(WuG, 157) - “국민투표적 지도자 민주주의(plebisitäre Führerdemokratie)”로 불렀던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여기에 있다. 베버가 후기-국가사회주의(Post-Nationalsozialismus)의 색안경을 통해 읽었던 차후의 비판은 무엇보다 이러한 표현에 집착했으며, 독일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베버의 관념에 대한 <의회와 정부>에서 알아챌 수 있는 것에는 오히려 관심을 덜 두었다.

베버의 “의회제도화와 연방주의(Parlamentarisierung und Föderalismus)” (Kapitel VI)의 관계의 상세한 분석에서 많은 것들이 전쟁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에 흘러 들어갔다. 연방주의, 독일 국가구조의 이 핵심 문제는 다시 정치 - 혹은 헌법이론의 토대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독일 국가구조의 문제와 이권 정세와 함께 실제 역사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근거해 논의되었다. 프로이센 문제, 즉 제국과 프로이센의 이원론이 중심에 있다. 베버는 중앙집권적 경향의 부활이 아니라, 연방주의의 발전을 희망했는데, 하지만 제국의 자유 방향이 아니라, 제국에서 보장된 영향력을 향한 방향으로 말이다(MWG I/15). 그는 국가 정치적 또 문화정치적 이유로 개별 왕가들의 존속을 변호한다.

제국과 프로이센의 이원론의 핵심 문제는 베버에게 프로이센의 3계급 선거권의 존속이다. 이것은 순전히 프로이센의 내부정치적 사안이라는 베를린에서 자주 건의된 논거에 반대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기억하는데, 즉,

다른 모든 개별 주들(Einzestaaten)의 의회와 관청들과 비교하여 프로이센의 의회와 일정부분 정말 프로이센의 관청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특권적인 특수한 지위를 취하고 있다(ebd., 534).

결론은 (1) 온전히 프로이센 관청이 지속적으로 제국과 다른 주들(Staaten)의 생존문제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2) 바이에른과 같이 프로이센에 대항해 특별한 “예외법”을 통해 정말 부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주들은 사실상 병합된 주라는 점이다(ebd., 560). 이것이 프로이센에서도 또한 동일한 선거권과 제국의 회선거권 도입을 위해 전쟁 중에도 베버가 끊임 없는 캠페인을 벌인 배경이다.

1917년 7월 중순과 9월 중순 사이에 수정되어, 1917년 말에 발간된 위대한 논문 <독일의 선거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 동기는 전쟁 이후 국가의 공고화(Konsolidierung der Nation)에 대한 베버의 걱정 때문이다. 프로이센의 3계급 선거권이 존속하는 경우엔 “귀환하는 전사들의 아주 큰 집단은”(ebd., 349)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계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신의 피로 정치적으로 특권을 가진 고향에 머물던 자의 재산과 전승자의 이권을 지켰을 것이다. 베버는 비판적 분석에서 당시 언론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선택권들을 - 재산, 교육, 직업층 등에 따른 선거권의 등급 - 두었는데, 이 비판적 분석은 “전쟁졸부-금권정치(Kriegsparvenü-Plutokratie)”(ebd.)에 대항해, “독일 문학자 본능이 항시 새롭게 행하는 아마추어의 공중누각(dilettantische Seifenblasen)”(ebd., 355)에 대항해, “우리의 잉크스탠드-이론가”(ebd., 371)에 대항한 모든 논쟁에서 매혹적인 사회학을 설명한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남유럽과 비교할 때 대조를 이루는 역사적 사회학이다.

예를 들어 베버의 귀족정치에 대한 시각이 참조되는데, 이 귀족정치가 독일에선 “충분한 범위와 정치적 전통”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품위 있는 독일 사회의 형태”를 나타낼 수 없었다. “독일 사회의 형태”, 즉 권위있는 계층이 다음 세대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인간(Couleurmenschen)”의 완고한 관습들은 영국 혹은 라틴어계의 나라들과 달리 민주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계급관습과 물질적이지만 서민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만

일 민주화가 - 역시 동등한 선거권을 통해 - “도전으로 응할 수 있는 대학졸업자들”의 사회적 명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맞게 또 그로 인해 ‘진정한’ 그리고 품위 있는 형식적 가치의 발전을 위해” 길이 열려 있을 것이다(ebd., 386ff)

단지 여기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선거권과 민주화>에서 제기된 주제들의 풍부함과 많은 양이다. 거기서도 다룬 사회발전의 경제적 차원으로 베버는 1918년 6월 <사회주의>란 강연에서 훨씬 더 상세하게 논한다. 여기서 그는 k.u.k. 장교들에게 민주화, 관료화, 민간경제 그리고 공동경제에 대해 집중 강좌를 제공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설명은 <공산당 선언(Kommunistische Manifest)>이 “제1의 학술적 성과라”는 것을 미리 말해준다(ebd., 616). 개별적으로 그는 예언적인 특성을 비판하고, 이외에도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신디칼리즘 그리고 진행중인 위대한 러시아 실험의 전개를 분석한다. 여기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그의 예측은 대체로 상당히 회의적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는 국가체제도 경제도 이끌지 못하고, 전체 기구가 “장군들이 아닌 분대장들의 군사독재”이기 때문에, 또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토지에 굶주리고, 농업공동체에 익숙한 농부들과 협력하기 때문에 단지 전체 기구가 작동할 뿐이다(ebd., 629).

이 강연에서(<세계대전의 정치에 대해>에서 수집한 거의 모든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베버는 시사정치적 문제들도 반영하거나 혹은 그런 문제들에 반응한다. 국내정치적으로 그의 위험한 비판은 거의 경계를 모르는 반면에, 외교적으로 그리고 최고사령부를 통한 전쟁지휘에 대해서 그는 상당히 자제하거나 혹은 사건경과의 실질적 성격에 시선을 둘 수 있는 시사정치적으로 의도된 논증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1914년 독일의 벨기에 점령과 관련하여 그가 오랫동안 정당화하고 또 그런 탐닉을 경시하거나, 혹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있었던 독일의 협상태도에 대해서 독일의 입장에서 “가장 충직한 방식”으로 이끌었다고 <사회주의>에 대한 강연에서 그는 주장한다(러시아혁명에 관한 그의 시각에 관해서 Mommsen 2004, 302 참조). 그의 전쟁문헌과 전쟁발언의 정치, 사회학적 분석들은 국가의 생존과 강대국으로의 미래에 대한 가치의 관점 하에서 완전히 투명한 방식이다. 거시적 사회학적 시각으로 볼 때, 베버에게 세계전쟁

은 무엇보다 특정 생활방식의 개선행렬(Siegeszug)이며, 전 세계의 “공장에서 군대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지배단체들의 합리적이고, 분업적이며, 전문적이며, 관료적 조직”의 개선행렬을 의미한다(MWG I/15, 461). 그들의 입장에서 정치적 분석은 당시 지속적으로 분열된 확신에 근거하는데, 즉 독일은 볼구 대천의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다(cbd., 684ff).

막스 베버 안에선 두 개의 세계, 사라지는 세계와 다가오는 세계, 즉 근대적이고, 합리적이며, 관료적이지만, 동시에 또한 귀족적인 투쟁과 명예의 옛 세계가 서로 만난다. 세계대전은 그에게 한편으론 중부유럽에서 지난 세기 호전적인 대결의 고전적 지속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론 국가형성과 강대국형성의 불가피한 종결로 보인다. “우리가 이 전쟁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린 제국의 건설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고, 소국들의 민족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cbd., 193). 독일은 이제 7백만이 아닌, 7천만의 민족이라는 것, 이것이, 베버가 말하길, “우리의 숙명이다”. 그 속에서 “그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역사 앞에 세우고”(cbd., 194), 만일 끊임없이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면, 그것을 항상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가 견뎌야 할 이 숙명의 무게가 국가를 위로 이끌고, 몰락의 나라와 위험을 지나, 귀환이란 없는 명예와 명성의 가파른 선로에서, 세계역사 지배의 청명하고 거센 공중으로, 국가는 그의 격렬하지만, 강력한 얼굴에서 불멸의 기억으로 향한 후손들을 보아야 하고, 또 불지도 모른다(cbd.).

References

- Anter, Andreas: *Max Wébers Theorie des modernen Staates. Herkunft, Struktur und Bedeutung*. Berlin 1995.
- _____. /Breuer, Stefan(Hg.): *Max Wébers Staatssoziologie. Positionen und Perspektiven*. Baden-Baden 2007.
- Beetham, David: *Max Wéber und the Theory of Modern Politics*. Oxford 1985 (1974).
- Bruhns, Hinnerk/Duran, Patrice (Hg.): *Max Wéber et le politique*. Paris 2009.
- Chazel, François: Les écrits politiques de Max Weber: un éclairage sociologique sur des problèmes contemporains. In: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46-4 (2005), 841-870.
- Mommsen, Wolfgang J.: Politik und politische Theorie bei Max Weber. In: Johannes Weiß (Hg.): *Max Wéber heute. Erträge und Probleme der Forschung*. Frankfurt a.M. 1989, 515-542.
- _____. *Max Weber und die deutsche Politik 1890-1920*. Tübingen 2004 (1959, 1974).
- Ungern-Sternberg, Jürgen von/ Ungern-Sternberg, Wolfgang von: *Der Aufruf an die Kulturwelt. Das Manifest der 93 und die Anfänge der Kriegspropaganda im Ersten Weltkrieg. Mit einer Dokumentation*. Stuttgart 1996.